

Vending Korea 2005 개최 무산

자판기 관련 종합전시회인 Vending Korea 2005의 개최가 무산되었다. 격년제 전시회인 Vending Korea는 원래대로 라면 지난 2001년, 2003년에 이어 올해 개최가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심각한 자판기 산업의 불황 여파는 전시회 개최 자체를 진행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고, 급기야 주최 측인 협회와 COEX는 차후를 기약하며 금년 전시회 개최를 포기했다.

진한 아쉬움이 남는 Vending Korea의 개최 무산. 과연 산업계는 이번 전시회의 무산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 봐야 하는 가. Vending Korea 2005의 개최 무산이 남긴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 Vending Korea, 왜 개최 무산 되었나

Vending Korea 개최 무산의 가장 큰 이유는 자판기 산업의 심각한 경기불황에 있다. 작년부터 국내 전체적인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가운데, 자판기 산업계 역시 불황이 가중되었다. 산업매출은 줄어들었으며 주력 아이템 부재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유지해 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기 일쑤였다. 그간 산업의 한축을 담당했던 몇몇 중소기업들이 좌초가 되기도 했으며, 새로운 신제품 출시를 통한 시장 활력도 어느 때 보다 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이렇다보니



지난 2003년 Vending Korea 개최 장면

전시회 개최 여건이 과거 2001년, 2003년 보다 열악해졌다. 경기가 불황이면 기업은 일단 홍보비부터 줄이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Vending Korea 2005 전시회 개최에 큰 암운이 드리워졌다.

하지만 협회에서는 전시회 개최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준비작업을 진행했었다. COEX와 2005년 10월로 개최 일정을 잠정 확정하고, 협회 이사회를 통해 승인을 받으려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시회 개최

참가 여부였다. 자판기 산업 특성상 메이저사가 참가하지 않는 전시회는 반쪽 전시회를 불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개최가 힘들어 진다. 협회는 전시회의 개최에 있어 양사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참가를 사전에 확정 받으려 했다. 하지만 경기불황의 여파는 양사를 피해가지 않았다. 양사는 공히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는 Vending Korea 2005의 개최가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양사 이외의 의사를 타진했던 몇몇 기업들도 같은 이유를 들어 Vending Korea 2005 개최에 부정적인 시각을 표명했다. 이렇다보니 시간은 가고 개최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봉착

하기에 이르렀다.

아무리 협회의 개최의지가 확고해도 제반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전시회 개최를 확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열악한 시장 상황 앞에서 무리한 전시회 개최를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잃는 게 더 많아 질 수 있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 10월말 Vending Korea 2005 개최가 힘들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올해 전시회는 개최는 무산시키고 차후 전시회 개최를 도모하기로 결정을 했다. 격년제 전시회로 성공적인 안착을 했던 Vending Korea가 아쉽게도 무산되기에 이른 것이다.

▶▶ Vending Korea 개최 무산이 남긴 과제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지난 VENDEX 2004의 개최가 무산이 된 아픔을 겪었다? 우리보다 산업규모가 훨씬 큰 일본도 경기불황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오랜 전통의 전시회 개최를 무산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VENDEX 2005 개최 무산은 당해년도만의 아쉬움이 아니라 앞으로도 큰 걱정거리를 안기고 있다. 일본에서는 단 한번의 개최취소가 차후 전시회의 개최도 어렵게 하리라는 우려들이 커지고 있다. 그만큼 격년제로 지속적으로 개최해 온 전시회의 무산 여파가 크다.

국내 Vending Korea 2005의 개최 무산도 똑 같은 과제를 안긴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개최가 무산이 되었으나 이제는 차후 전시회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으로도 경기불황의 여파가 지속되어 자판기 산업이 활력을 회복하지 않는 한, 전시회 개최는 또 다시 어려워 질 수가 있다. 협회에서는 일단 차후 전시회를 2006년에

다시 개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경기 상황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여부가 차후 전시회 개최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경기상황이 전시회 개최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현실은 슬픈 일이다. 자판기 전시회가 경기상황에 따라 위축될 수는 있겠으나 개최 여부까지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계 기반이 미약하다는 반증이다.

유럽의 3대 전시회인 영국 AVEX, 프랑스 D.A EXPO, 이태리 VENDITALIA와 전통 깊은 미국의 NAMA 전시회는 개최주기를 거르지 않고 꾸준히 개최가 되고 있다. 이들 관련 국가들도 자판기 산업 경기가 항상 좋을 리 만은 없겠지만 전시회 개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유럽대륙의 전시회는 참가대상이 EU 지역의 국가들로 광범위하고, 미국 역시 방대한 시장 규모 특성상 참가대상 업체들이 많다.

Vending Korea 전시회를 보는 산업계 인식이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시회를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효과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산업계의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는 일도 중요하다.



COEX전시장에 Vending Korea 전시회 현관이 걸릴 때는 과연 언제가 될까? 산업계의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이 전제되어야 Vending Korea 전시회를 되실릴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라도 일단 전시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국내와는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해외 전시회의 경우 비즈니스 전시회로서의 전문성을 중시한다. 즉 당장의 이익보다는 사업적인 기반과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 측면도 상당히 중시가 된다.

반면 국내 전시회는 당장의 이익에 연연하는 성향이 강하다. 전시회를 통해 계약을 체결, 매출을 증가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전시회의 장기적인 효과, 보이지 않은 효과에 대한 관점은 일반적이지 않다. 이같은 차이는 국내 산업계가 전시회의

필요성과 활용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전시회가 경기호황일 때만 개최되는 전시회가 아니라 불황을 탈피하는 수단으로서의 장기적인 측면이 중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자판 산업계의 의식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다보니 향후 Vending Korea 전시회도 갈 길이 멀다. 우선적으로 Vending Korea 전시회를 보는 산업계 인식이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시회를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효과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산업계의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는 일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자판기 분야의 대소비자 인식확대에 있어 Vending Korea가 큰 역할을 해온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차후에도 전시회가 개최되지 못한다면 산업은 퇴보를 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산업의 위상을 현격히 깎아 내리는 일인 동시에 산업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할 수가 있다. 자판기 산업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차후 Vending Korea 전시회 개최에 산업계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